


❖ **글라스타워(창신)**
- **미화팀 최영해 여사님**

전에는 남자 미화원까지 3명이서 하던 일을 현재는 남자 사원 없이 두분의 여사님께서 맡아 하고 계십니다. 남자 사원 없이 하기 힘든 공동작업, 파지 및 쓰레기 분리작업을 최영해 여사님은 동료이신 노금자 여사님과 불평 한마디 없이 항상 성실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최영해 여사님은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시어 청소를 말끔히 마치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라스타워(창신) 최영해 여사님 정말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 글라스타워(창신) 소장 김영환 -



당신은 성원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
그 바람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훌륭한 일입니다
1등 기업 성원이 최영해 여사님을 응원합니다!

